

2017년 9월 18일, 한경면 용당리 부순여 씨 댁, 이효순 조사.
부순여(여, 1928년생, 한경면 용당리)

- 줄거리: 생선 장사를 하는 부모가 아들에게 윗동네 마을에서 생선을 팔고 오라고 하였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생선 이름을 묻자 대답을 못한 생선장수 아들은 야단을 들을까봐 생선도 놔두고 도망치다가 풀밭까지 왔다. 마침 헐떡거리며 바라다본 개구리의 배가 불룩불룩 하는 것을 보고 “너도 나처럼 생선장수 다녔냐?”고 물어보자 대답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개구리도 자신처럼 생선 팔러 다녀서 가슴이 볼락볼락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옛날 고기장시하는 아이가 지네 어멍 아방네 고기 풀렌 허난 저 웃동에 고기 풀레 간.

“너 이거 무신 궤기냐?”

허난, 고기 이름 알아져게. 모르난, 고기장시 허는 아이는 두령청허난 하르방 안티 욕 들으카부덴, 궤기 내불엉 돌아나 불었어. 누게 심으레 와게. 지 심으레 왕이카부덴. 저 풀밧디 들어강 보난 가가비가 볼락볼락했이난

“니도 고기장시 뎅겨난다?”

지가 궤기장시 뎅기멍 돌아나난 가슴 볼락볼락 허는디 가가비가 말 골읍니까. 볼락볼락 허난 ‘니도 궤기장시 뎅겨난다?’ 좀좀허난 어멍 아방신디 골았어. 골으난

“나추룩 고기 풀레 뎅겨낫인고라, 가가비도 가슴 볼락볼락 했우다.”

들어 웃언.

들으멍 들어 웃엇우다.

- 핵심어: 생선, 가가비(개구리), 궤기장시(생선장수), 궤기(고기), 하르방(할아버지), 아들, 고기장시(생선장수)